

공군 “호남 반도체 메가투자자 ‘광주기지’ 예천·서산에 분산”

T-50 2개 대대 예천·TA-50 대대 서산에 내후년까지 국방위 계룡대 국감 앞 업무보고서 “적기 시행하겠다”

공군이 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투자 방침에 따라 광주 군공항에 배치된 항공 전력들을 충남 예천과 서산기지로 분산 이전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공군본부 김현중 정책실장은 이날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광주 군공항 임시배치를 적기에 시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임시배치는 예천·서산·충원기지로 추진하며 관련 시설을 구축하고 작전 운영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하겠다”며 “임시 배치와 동시에 무안 군공항을 적기에 확보하는 데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광주 군공항에는 전투기 조종사 양성 임무를 수행하는 제1전투비행단이 있다. T-50 고등훈련기를 운용하는 제189비행교육대대와 제216비행교육대대, T-50에 무장을 결합한 TA-50 경공격기를 운용하는 제206전투비행대대 등 총 3개 비행대대가 있다. 공군의 임시 배치계획에 따르면 T-50 고등훈련기를 운용하는 제189·제216비행

교육대대 등 2개 대대는 예천기지(제16전투비행단)로 이동한다. T-50 고등훈련기를 한곳에 모아 전투기 조종사 양성을 위한 고등비행교육기지도 예천기지에 남긴다. TA-50 경공격기를 운용하는 1전비에 하제206전투비행대대는 서산기지로 이동하고, 기존 예천기지에 있던 TA-50 대대(115전투비행대대)는 충주 충원기지로 이전한다. 이에 따라 TA-50를 활용해 공대공·공

대지 사격 등 전투 기술을 연마하는 조종사 전술입문과정(LIFT)은 서산·충원기지에 남긴다. 공군은 임시배치 병력 주거여건 조성과 전력운용 임시시설 및 장비확보, 비행훈련 여건확보 등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3169억 원을 반영했다. 공군은 비행교육훈련 최적화 등을 통해 임시배치에 따른 조종사 양성 영향을 최소화하고, 서남권 비상대기 보완, 공중훈련 확대, 전력증강 등 대비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기지 임시배치는 오는 2028년 중순까지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지난달 29일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더 앞당길 수 있도록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임시배치가 더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추후 광주 군공항의 무안 이전이 최종 확정되고 무안에 군공항이 신설되면, 분산이전된 기존 광주기지 3개 대대는 무안 군공항에 다시 집결된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2026년 농촌&체험 페스티벌 백승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균형발전부시장이 20일 여수엑스포 디지털갤러리에서 열린 '2026년 농촌&체험 페스티벌'에서 농협중앙회 전남본부,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사)전남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와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엠코 3조 신규 투자…전남광주, 폐수시설 증설 착수

일 9000t 발생 예상…2028년 장성시설 완공 목표
용수·하수·전력 등 기반시설·인허가 행정절차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의 3조원 규모 반도체 신규 제조라인 착공에 맞춰 폐수처리시설 증설 추진 등 바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2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엠코가 공장을 증설하면 하루 폐수 발생량이 당초 6000t에서 9000t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됨에 따라 광주하수처리장과 장성공공폐수처리시설을 활용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장성군과 함께 오는 2028년 6월을 목표로 장성공공폐수처리시설을 증설키

로 하고, 이를 위한 산단관리계획 변경 및 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 등 사전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재원 협의를 거쳐 건설사업관리용역, 공사 발주·시공·준공 후 시운전을 통해 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할 계획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앞서 ‘기업지원 전담팀(TF)’을 구성해 용수·하수·전력 등 핵심 기반시설 지원과 인·허가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협의해 왔다.

이같은 조치는 엠코코리아가 지난 19일 ‘첨단 반도체 신규 제조라인 착공식’에서 3조원 투자 계획을 밝힌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투자 규모는 지난 6월30일 발표 당시 1조원에서 3조원으로 3배가 늘어났고 청년 일자리도 2000개 이상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1조원 투자 때 예상된 폐수는 하루 6000t이었다. 이 가운데 3500t은 광주 제1하수처리장에서, 2500t은 장성 첨단3지구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할 계획이었다. 3조원으로 투자가 확대되면서 폐수 발생량은 하루 9000t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늘어남 3000t의 폐수는 장성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예정

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장성군은 앞서 지난 9월18일 장성군과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 광주반도체공장 투자유치를 위한 반도체 폐수처리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이번 엠코의 추가 투자는 전남광주 통합의 힘이 발휘된 대표적 사례로, 산업과 폐수처리시설 같은 환경 인프라의 연계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해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동민 기자 yang000@gwangnam.co.kr

전남광주, 벼 재배면적·쌀 생산량 전국 1위 쌀 73만8000t 생산 전망…공공비축미 매입·수급관리 강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쌀 예상생산량조사 결과’에서 벼 재배면적과 쌀 예상생산량이 모두 전국 1위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전남광주지역 벼 재배면적은 14만8349ha로 전국에서 가장 넓고, 쌀 예상생산량은 73만8159t으로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전국 쌀 예상생산량의 약 21%에 해당한다. 전국 쌀 예상생산량은 351만8000t으로 전년보다 2만1000t(0.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벼 재배면적은 67만69ha로 1.1% 감소했으나, 10a당 예상생산량은 기상여건 개선 등 영향으로 0.5% 증가한 525kg으로 나타났다. 통합특별시는 전국 최대 쌀 생산 기반을 갖춘 만큼 올해 수확기 공공비축미 매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산지 쌀값과 벼매입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해 수급 안정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군과 농협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공공비축미 매입을 추진한다. 매입 일정과 출하 여건을 점검해 농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농협과 마곡종합처리장(RPC)의 벼 매입 동향, 민간 제고와 출하 상황 등도 계속 살필 방침이다. 또 실제 수확량과 수요량, 제고·가격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공급 과잉이나 쌀값 하락 우려가 확인되면 정부에 추가 매입 등 수급안정대책을 건의할 예정이다. 송명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축산식품과장은 “전남광주는 벼 재배면적과 쌀 예상생산량이 모두 전국 최대 규모인 만큼, 수확기 수급 상황을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공비축미 매입과 자질 관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농업인의 어려움을 줄이고 쌀 수급 안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정철 기자 holbul@gwangnam.co.kr

▶1면 ‘공소청 국감’서 계속

공소청 측은 관련 조직을 운영하고 있지만 인력과 제도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의원들은 범죄수익 환수가 실질적인 피해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완수사 성과와 항소심 대응도 국감에서 다뤄졌다. 윤상현 의원과 박규택 의원은 보완수사 성과를 평가했으며, 박지원 의원은 항소심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남광주 반도체 패키징 실증센터, 중앙투자심사서 ‘재검토’

상무소각장 문화재생 등 10개 사업 중 5건 재검토·반려
백운~매곡 BRT 구축도 ‘제동’…국가산단 조건부 승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추진하는 반도체 첨단패키징 실증센터 구축 사업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 판단을 받았다. 상무소각장 문화재생과 백운~매곡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 사업도 반려돼 사업 규모와 재정 부담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졌다. 20일 통합특별시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2026년 제3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열어 통합시와 일선 시·군이 제출한 10개 사업 가운데 5개 사업을 재검토하거나 반려했다. 나머지 5개 사업은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반도체 첨단패키징 실증센터는 국비

290억원과 시비 50억원, 민간자금 80억원 등 총 420억원을 투입해 반도체 패키징 장비 9대를 구축하고 시험·분석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무위는 이 사업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객관적인 산출 근거를 토대로 사업의 필요성과 규모의 적정성을 다시 검토하라고 통보했다. 운영수익의 역사회 환원 방안을 구체화하는 등 국가사업에 지방비를 투입하는 것이 적정한지도 살펴도록 했다. 앞선 심사에 이어 다시 상정된 상무소각장 문화재생사업과 백운~매곡 BRT 구축 사업은 반려됐다.

상무소각장 문화재생사업은 지하 1층·지상 5층, 연면적 8581㎡ 규모의 시설에 전망대와 아카이브, 콘텐츠클, 카페타운 등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중무위는 경제적 타당성이 낮다는 점을 들어 시설별 필요성과 적정 규모를 재검토하도록 했다. 운영수지 적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설·인력 운영 방안도 요구했다. 백운~매곡 BRT 구축 사업에는 총사업비를 다시 산정할 필요가 있고, 사업 추진의 정당성 확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두 사업 모두 재심사에 앞서 기존 계획을 보완해야 하는 상황이다. 시·군 사업 가운데서는 여수 진남관 주변 호국 문화관광 플랫폼 조성사업과 무안 송달산 공립산림레포츠센터 조성사업이 재검토 대상으로 분류됐다. 사업비는

각각 366억원과 300억원이다. 반면 산업 기반시설과 재해 예방 등을 위한 5개 사업은 조건부로 심사를 통과했다. 나주에너지국가산단 개발사업 3519억원과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조성사업 2194억원이 여기에 포함됐다. 북구정 사거리 일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352억원, ‘여수로 삼-잇 트레일’ 사업 376억원, 고흥 도시가스 공급배관 건설지원 사업 278억원도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통합시 관계자는 “반도체 첨단패키징 실증센터는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 보완할 계획”이라며 “중무위가 지적인 내용을 보완해 다음 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현규 기자 gnnws1@gwangnam.co.kr